

<AHS E. 18th Groundbreaking Event, Jan. 16<sup>th</sup> 2010>

'연간 5000명 더 진료'..AHS, 새병동 웰니스 센터 착공



16일 오클랜드 메트로폴리탄 은행에서 열린 착공기념식에서 AHS의 웨리 히로토 CEO가 참석자들에게 웰니스 센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.

저소득층 이민자 대상 의료기관 오클랜드 '아시안헬스서비스(AHS)'가 진료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새 병동 '웰니스 센터' 건설에 착공했다.

새 건물은 120만달러가 투입돼 오클랜드 레이크 메릿 동쪽 지역에 고혈압, 당뇨 등 만성질환 치료에 초점을 두고 세워진다.

16일 오클랜드 메트로폴리탄 은행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AHS 웨리 히로토 CEO는 “작년 한해 주민 12%가 직장을 잃으면서 건강보험도 사라지게 됐다”며 “새 병동이 생김으로서 저소득층의 건강을 위한 사회 안전망이 더 공고히 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AHS가 병동을 지을 수 있도록 정부로부터 캐피탈 펀딩을 이끌어낸 바바라 리 연방하원의원은 “AHS는 저소득층과 새로운 이민자를 위해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기관으로,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”이라며 “소수계의 복지를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매우 뜻깊은 날”이라고 강조했다.

AHS는 기존의 병원 외에 웰니스 센터가 완공되면 연간 5000명에 새로운 환자를 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. AHS의 2007년 자료에 따르면 이용자 69.6%가 극빈층이다.